



AJU BIENNIAL MAGAZINE

VOLUME 55



2020 AUTUMN

AJU BIENNIAL MAGAZINE

VOLUME 55



editorial work for 「Erratum」, 2015

COVER ARTIST

Tom Haugomat

파리에서 나고 자란 톰 오고마는 일러스트레이터보다 스토리텔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작가다. 그의 일러스트 속 광활한 자연과 건조한 도시에서는 얼굴 없는 자그만 사람들이 살아간다. 익숙한 풍경은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몽환적인 느낌으로 거듭난다. 미지의 세계로 이어진 길처럼,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이야기처럼 톰 오고마의 일러스트는 그 너머를 상상하게 만든다.

editorial work for 「Lire」, 2019

message

참된 인간다움의 훈훈함을 지키며 깊이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지혜

서점가의 책 제목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나답게 사는 것을 일러주는 책은

현대인에게 깊은 위로를 건넵니다. 일찍이 수천 년 전에도

자기다움의 중요성을 주창한 이가 있었으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자기다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다움을 통해 마음에 단단한 씨앗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단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아주좋은날』에서는 땀 흘려 축적한 지혜를

혁신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특별히, 60년을 맞이하는 아주가 축적해온 지혜는

혁신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소중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contents

2020 AUTUMN | AJU BIENNIAL MAGAZINE | VOLUME 55

발행일 2020년 10월 20일(통권 제55호) | 발행처 아주 |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 발행인 아주 커뮤니케이션팀 (02-3475-9693)

기획 애플트리태일즈 |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 | 인쇄 베러웨이시스템즈 | 등록번호 서초 사00076호



ART&LIFE

gallery

꿈을 현실로 만든
혁신적인 문화 이야기
2

knowledge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비즈니스 키워드
10

insight

인류를 구한
위대한 발견, 백신
12

art

색과 형태 사이에서 숨 쉬는 이야기,
툼 오고마
16

1960

열정에 불을 지핀 결정적 발견
빛살무늬토기
20



NOW&MOMENT

culture and the city

모래언덕에 세운 혁신 도시
텔아비브
22

special free time

트레일러닝
Run, Trail Run
26

creator

내 마음의 보물 창고
최지웅
30

literature and food

먹이는 일의 성스러움
소설 『칼자국』 속 칼국수
32

scene of object

시간을 달리는 의자,
〈맨 인 블랙〉속 클래식 চে어
36

2020

세계 7대 불가사의 비밀을 푼 최후의 발견
스톤헨지
38



AJU&STYLE

Sixty AJU

AJU
타임라인
40

Twenty AJU

도전 정신 깨워
새로운 도약
46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8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1960년 아주의 초석을 다진 창업주는
발상의 전환으로 국가의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섬김 정신입니다.

1960년의 시대정신은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아주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성원과 고객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함께합니다.
그 도전 속에서 아주는 행복을 배웁니다.

창립 60주년,
아주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며
100년 기업을 향해
개척자 정신을 나침반 삼아
60년의 지혜를 더한 20대의 젊음으로
아주 새로운 혁신을 시작합니다.



ART & LIFE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답는다.

니체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창의
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오
랜 시간 꿈을 심고 가꾸고 땀 흘려 키워낸 이들만
이 거둘 수 있는 오늘의 열매입니다. 오랜 세월 자
신만의 건축 언어를 써 내려간 끝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여성 건축가 이본 패럴과 셸리 맥너마라부
터 수년간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인
류를 구할 백신을 발견한 과학자 파스티르까지, 오
랫동안 꿈을 품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낸 빛나는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MOS REX

창,
안에서 바깥을
끌어들이다

지하 미술관의
이유 있는 차경

한동안 시간이 멈춘 듯했던 핀란드 헬싱키 시내 한복판에 문화의 활기가 감돌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의 시간을 끌어안은 도심 재생 덕분이다. 1930년대에 지은 헬싱키 광장은 여러 번의 철거 위기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구역 일대가 점차 황폐해졌다. 헬싱키시와 예술 후원 재단은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뜻을 모아 흉물스러워진 광장에 새 숨을 불어넣어 미술관으로 되살렸다. 이렇듯 헬싱키의 흐르는 시간을 끌어안은 레노베이션을 통해 아모스 렉스 미술관이 개관했고, 이곳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미술관은 지상 광장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채 지하에 1만 3,000m² 규모로 조성했다. 1930년대에 지은 빌딩과 광장의 모습은 보존하면서 지하에 미술관을 짓는다는 역발상은 헬싱키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사회로까지 널리 알려져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미술관의 백미는 기하학적 형태의 유리 돔이다. 과거와 현재,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는 유리 돔을 통해 지하 미술관으로 빛이 내리쬐고, 지하에서 올려다본 하늘은 더욱 강렬하게 푸르다.

2018년 8월에 개관한 아모스 렉스 미술관은 가로 2m가 넘는 거대한 풍경화, 극사실주의 조각, 미디어 아트 등 시기와 장르의 경계를 허문 현대미술 전시를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amosrex.fi



UTEC

벽,
인간의 삶을 위한
틀을 짓다

유텍 공과대학의
겸손한
건축 언어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면서 도시 환경을 포용하고 새로운 건축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이면서 맥락 있는 공간을 구현했다.” 세계 건축계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꼽히는 프리츠커 건축상 심사위원들이 차별적이고 독특한 디자인보다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온건한 건축에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프리츠커 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된 아일랜드 건축가 이본 패럴 Yvonne Farrell과 셸리 맥너마라 Shelley McNamara의 대표작, ‘현대건축의 마추픽추’라는 찬사를 받는 페루 리마의 유텍 공과대학 캠퍼스다. 패럴과 맥너마라가 주택가와 절벽, 고속도로 사이에 대학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자연적 요소였다. 이들은 지형적 특성과 비, 바람이 잦은 기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특한 트임식 열개의 건축물을 완성했다. 지역과 장소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건축과 사람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반영된 건축물이 설립되었고, 세계 건축가들은 패럴과 맥너마라의 겸손한 건축 언어가 빛은 건축물에 경의를 표했다. 건축을 두고 ‘인간의 삶을 위한 틀’이라고 말해온 두 건축가가 40년간 인본주의적 태도로 일관해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1974년 더블린 UCD 건축 대학원에서 만난 패럴과 맥너마라는 1978년부터 함께 그래프턴 아키텍츠를 운영하며 고국인 아일랜드를 비롯해 유럽과 남미 등지에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였다. grafftonarchitects.ie

ADVANCING COLUMNS

붓,
보이지 않는 생각을
그리다

단색화의 초석을 세운
기하 추상

새로운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었던 1960년대 우리 미술계에 작가 이승조^{1941~1990}의 출연은 그 자체로 혁신이었다. 그는 아방가르드 세대의 기수로 우리 미술계에 등장해 한국의 기하 추상을 진취적으로 이끌었다. 캔버스의 평면과 조형 간의 구조적 논리를 추구한 이승조의 작품은 광학적이고 시각적이어서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반하는 옵아트의 특징이 강하다. 매끄럽고 기계적인 표현은 당시로는 이례적이었는데, 이는 평 붓의 사용과 사포질이라는 반복적인 노동 과정, 그리고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작가의 독자적인 채색 방법에서 발현된 것이다. 순수 조형을 향한 개척자라도 같은 이승조의 노력은 '전례 없는 속도와 스케일로 현대 도시로 탈바꿈'해가던 시대의 풍경과 시각을 초월하는 붓질'로 평가받았다. 한국 추상회화에서 매우 보기 드문 기계 미학적 회화를 일구어내며 당대를 뒤흔든 혁신적인 미술가, 이승조. 그는 현재 단색화의 국제화가 있기까지 초석을 놓고 한국 기하 추상의 태동을 주도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전시실 중앙홀에서 11월 8일까지 '이승조: 도열하는 기둥' 전시가 열렸다. 이승조의 구축적인 조형성을 능동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mmca.go.kr



MONAMI

펜,
문구의 무게중심을
바꾸다

한국 최초의 볼펜이
보여주는
혁신의 힘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곁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할 때도, 교과서에 필기할 때도, 남녀노소 누구나 손에 모나미 펜을 쥐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를 뜻하는 모나미는 1960년 화학구류를 생산하는 광신화학공업으로 시작해 1963년 국내 최초 볼펜인 '모나미 153'을 출시했다. 이후 육각주 모양의 몸체, 잉크 심 색깔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원추 모양의 축 덮개, 축을 조작하는 간편한 노크 조작 버튼, 그리고 경쾌한 '딸깍' 소리는 볼펜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모나미는 '국민 문구'라는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써 내려갔다. 볼펜 색깔을 소비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만년필 잉크 색까지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 소비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은 모나미스토어도 눈길을 끈다. 이곳은 문구를 판매만 하는 공간이 아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문구를 손에 쥐고 써 내려가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제는 볼펜에서 문구로, 문구에서 문구를 매개체로 한 새롭고 강렬한 경험을 전달하며 혁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나미 153'은 약 43억 자루가 팔렸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15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다. 최근에는 태블릿에 전송되는 스마트펜을 출시하며 시대와 호흡하고 있다.
monami.com

뉴 노멀 시대, 변화하는 비즈니스 키워드

Home Black Hole

홈 블랙홀



우리는 ‘스위트 홈’이라고 하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로만 생각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홈이란 단어가 생겨났고, 집 안의 모든 것을 최첨단 기술로 무장해 집은 스마트홈의 전장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스마트’였다. 하지만 이제는 ‘홈’에 방점이 찍힌다. “집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잠만 자는 장소였던 집이 이제는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홈 블랙홀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살펴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집에서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플랫폼, 집밥의 고통을 해소해준 가정간편식, 집에 격리되면서 나타난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관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집이 있기에 가능한 활동이다. 특히 유튜브의 성장이 돋보적이다. 유튜브 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집에서함께해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집에서함께음악들어요’, ‘#집에서함께스포츠봐요’, ‘#집에서함께동물키워요’, ‘#집에서함께라이브봐요’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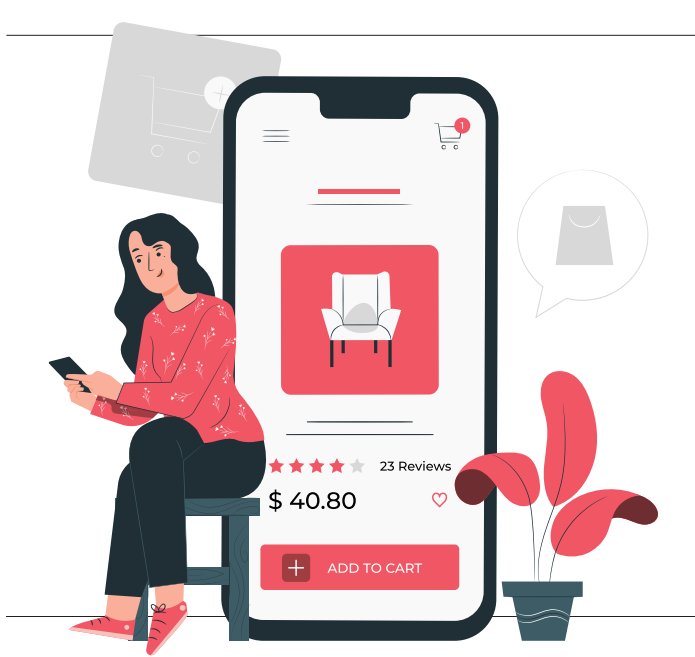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스마트’홈이 아닌 ‘홈’스마트를 기억해야 한다. 집의 역할에 집중한 홈스마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 콘셉트가 될 것이다. 혁신의 장은 늘 그렇듯이 핵심 구매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좌우된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욕구를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할 차례다.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접촉, 비대면 사회는 이미 예고된 미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렇듯 천변만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언택트 비즈니스를 꿰뚫는 변화의 키워드를 살펴본다.

글. 박경수 트렌드 분석가·경영 컨설턴트

Finger Click

핑거클릭



언택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는 온라인이다.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건 모두 얻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온라인 우세였다면, 코로나 이후는 온라인이 장악하는 시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는 온라인 쇼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6년 65조 6,170억 원에서 2019년 134조 5,830억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물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오아시스 등 배달 앱 이용자 수도 증가했다.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는 급격한 위기를 겪으며 온라인 비즈니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온라인 기반의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고객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실시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영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매장은 더 이상 제품의 전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수많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스튜디오가 된다. 또 이런 경험의 축적을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방송에서 제품을 소개하며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같은 성격도 갖는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온라인의 폭발적 성장의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의 장을 열고 있다. 디지털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이다.

Social Activity

취향 공유



코로나19가 만든 언택트 비즈니스 코드 중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 ‘취향’이다. 나를 위한 소비를 뜻하는 미코노미,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소비 특성을 보이는 MZ세대가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취향은 굉장히 한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소홀하게 다뤘다. 그러나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추구하는 소셜 살롱 ‘문토’, 독서 모임 플랫폼 ‘트레바리’, DIY 취미 키트 플랫폼 ‘하비인더박스’, 소셜 요리 클래스 ‘목금토 식탁’, 영화감상 공유 모임 ‘담화관’ 등 취향과 관련된 다양한 플랫폼이 나왔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의도치 않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취향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미래학자 넬 왓슨도 취향 플랫폼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점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건강, 친구, 가족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재발견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 활동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이제 이런 취향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은 취향을 매개로 이합집산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강한 유대관계를 강조하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사람들은 이동할 것이다.

Remote Work

생산성 포커스



마지막으로 생산성 포커스는 기업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중점을 둔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장의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되거나 직장폐쇄가 되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 속에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택·원격 근무, 비대면 면접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의 일시정지를 막기 위해 당장 우리는 기술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조직 문화다. 재택·원격 근무가 일상화되었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조직의 문화를 관리해야 할까. 재택 근무 상황에서 팀워크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AI로 구직자에 대한 면접과 평가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면접은 정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게 해줄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재택·원격 근무에 따른 이슈들을 고민하고 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재택근무를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모여 앉아야 창의성이 솟는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100% 원격근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혀 다른 방향을 내놓았지만, 두 기업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임시방편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로도 기업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솔루션 찾기보다 사고 자체의 변화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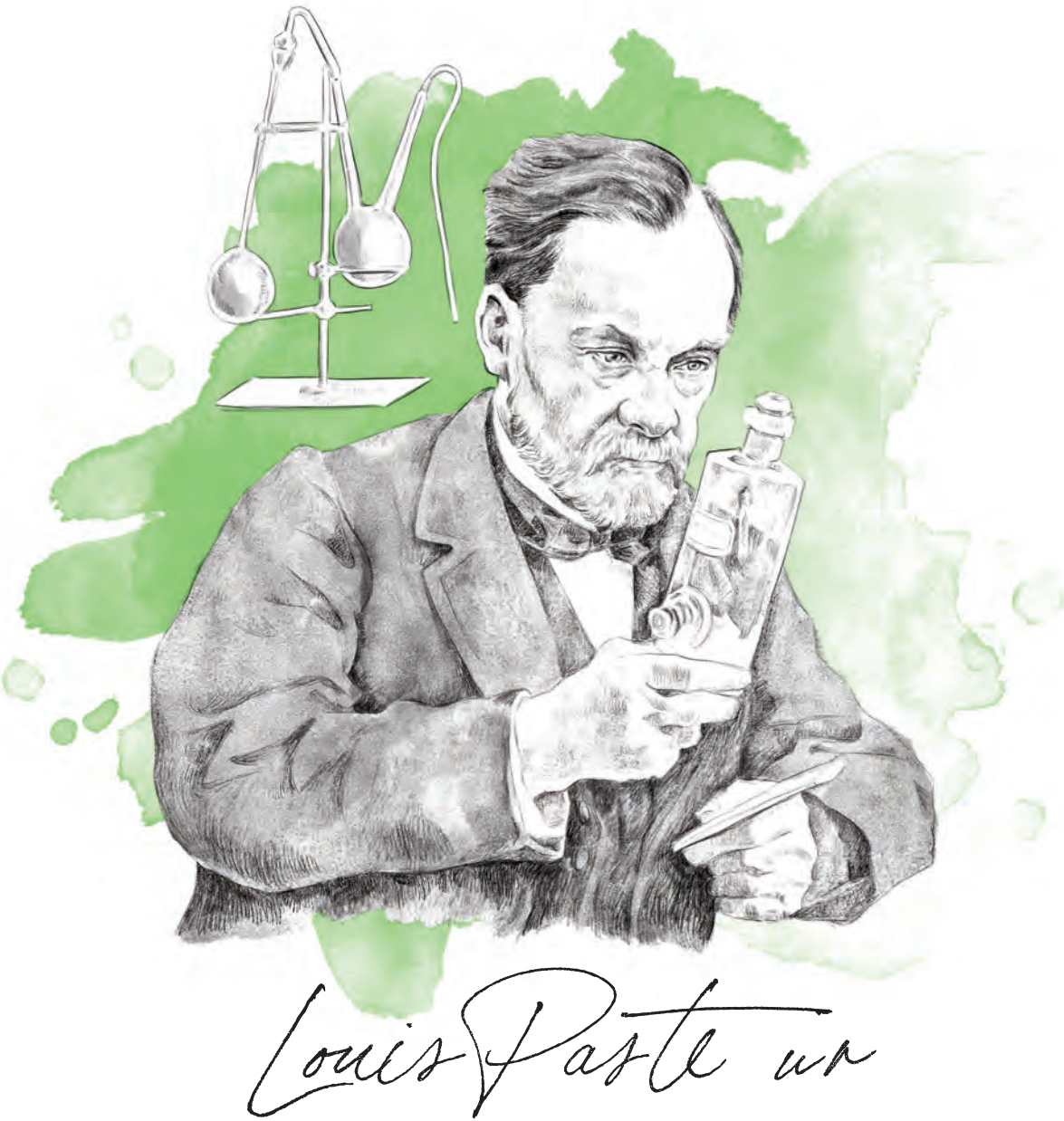
언택트 비즈니스의 4가지 코드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틀을 없애고, 기회의 포지션에 선다면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밝을 것이다. 지금부터 불확실성이란 파도를 즐겁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떠나보자.

인류를 구한 위대한 발견, 백신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인류 최대의 사망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는 바이러스에 무력하게 당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등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글. 유기현 과학 칼럼니스트
일러스트. 김옥

ART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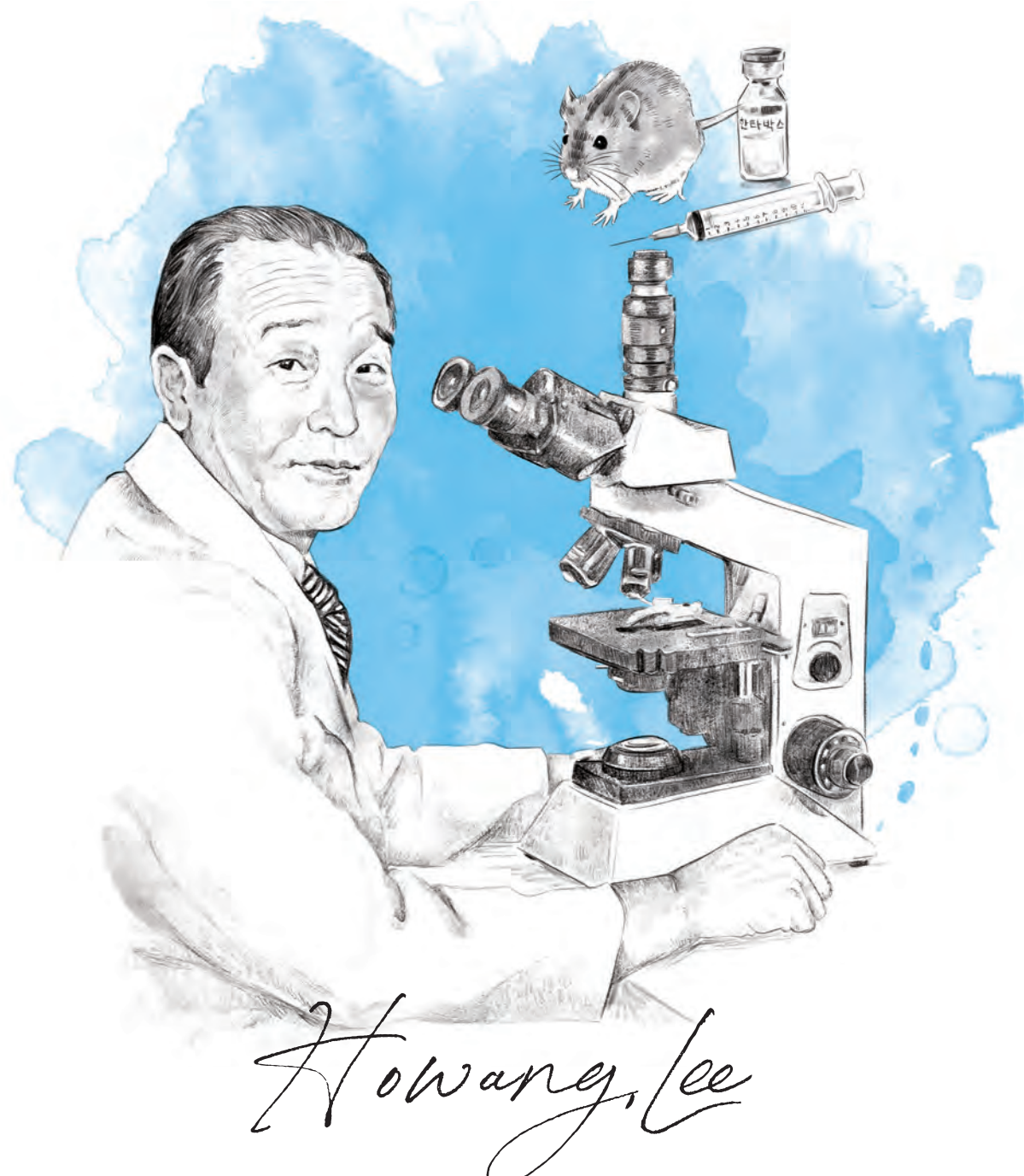


파스퇴르

예방접종의 원리를 알아낸다

인류는 수백 년 전만 해도 평균수명이 20~30살에 불과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10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절반에 달했다. 천연두나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등의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 질병의 원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밝혀졌다. 프랑스의 세균학자 루이 파스퇴르 Louis Pasteur, 1822~1895는 이 전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성 미생물이라는 학설을 완성한 인물이다. 세

균이나 바이러스는 모두 미생물에 속한다. 파스퇴르는 미생물에 의한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원리를 알아냈다. 물론 인류 최초의 예방접종이라 하면 1796년 영국 의학자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예방을 위해 우두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원리는 188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파스퇴르에 의해 밝혀졌다.



이호왕

인류를 구할 백신을 개발하다

인류 건강에 큰 공헌을 한 백신을 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있다. 이 백신은 '한국의 파스퇴르'라 불리는 이호왕 박사가 개발했다. 그가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와 면역체를 발견하고 예방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이제까지 유행성 출혈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을 것이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그는 지

난하고 고된 시간을 이겨내야 했다. 5년간의 연구가 수포로 돌아간 적도 있었다. 이호왕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내 유전자는 실패를 해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유전자인 것 같다"고 말할 만큼 연구에 몰두했다. 오랜 연구 기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정이 결국 많은 사람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냈다.

AJU 60th ANNIVERSARY

오직
준비된 자만이
중요한 것을
관찰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백신, 역발상으로 면역력을 키우다

파스퇴르가 처음부터 미생물을 연구한 건 아니었다. 1846년 화학 연구에 참여한 그는 1848년 주석산 결정에 대한 선광성을 연구해 이학박사가 됐다. 그리고 릴레 대학교 화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856년에야 미생물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양조업자들이 포도주가 쉽게 상하는 이유를 파스퇴르에게 문의하면서 발효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발효 현상에 화학반응뿐 아니라 미생물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연구에 전념한 결과 비정상적인 발효는 젖산균 같은 미생물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다.

1861년에는 더 나아가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1863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저온 살균법을 고안해냈다. 1865년에는 딸이 장티푸스로 사망하면서 파스퇴르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1877년부터는 인간과 고등동물에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관심을 돌려 가축이 잘 걸리는 전염병인 탄저병과 닭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예방접종법도 개발했다. 1885년에는 광견병 환자에게 균의 독성을 약화시켜 주입하면 환자의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내 바이러스성 질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파스퇴르는 제너의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균으로 만든 예방접종용 약을 ‘백신(vaccine)’이라 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방접종(vaccination)이라 명명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닭 콜레라, 탄저병, 홍역, 소아마비 등의 백신을 계속 개발했다.

오늘날 다양한 백신의 개발과 예방접종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 파스퇴르는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의 건강에 큰 공헌을 했다.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유전자
덕분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한국의 의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이호왕 박사는 1954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길 원했다. 6·25전쟁 직후라 뇌염, 천연두 같은 전염병 환자가 넘쳐나서 195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일본뇌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뇌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1년에 6,000~8,000명이 감염되어 그중 3,000~4,000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는 1959년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뇌염 연구를 계속했으나 1960년대 중반 일본에서 백신이 개발되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

백신으로 일본뇌염이 극복되면서 이호왕 박사는 5년간 연구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연구 과제를 찾아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성 출혈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행성 출혈열은 1930년대 말부터 알려진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1만 명 사망,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과 일본군 1만여 명 사망, 1950년 6·25전쟁 당시 유엔군 600여 명 사망 등 군인들의 집단 사망을 일으켰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명이 감염되는 병이었다. 게다가 이 병은 발병 이후特效약이 없어 사망률이 7%에 이르렀다.

이호왕 박사는 연구를 시작하고 처음 5년간 실패를 거듭했다. 연구 기

간이 길어지며 위기도 찾아왔다. 등줄쥐 3,000여 마리를 잡아 일일이 조사하며 특이한 항원을 찾아냈는데, 연구원 한 명이 쥐를 잡으러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2년여간 병원체를 찾다가 쥐의 폐에서 특수한 항원을 발견했다.

1976년 드디어 이호왕 박사는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발견했다. 한탄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등줄쥐의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한 데에서 ‘한탄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탄바이러스로 진단법을 만들고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서울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이때 동료 연구원 8명이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다. 그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를 계속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1981년부터 한탄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만드는 연구에 몰두한 그는 1989년 비로소 백신 만들기에 성공했다. 이 백신은 임상 실험을 거친 후 1991년부터 ‘한타박스(Hantavax)’라는 이름으로 시판됐다. 파스퇴르와 이호왕 박사가 그랬듯이 지칠 줄 모르는 연구자들의 열정은 결국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해낼 것이다.

회색의 도시 파리에서 나고 자란 톰 오고마는 몇 가지 색과 단순한 형태로 삶을 그려낸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커리어를 쌓은 뒤 꾸준히 그림책을 내다가 지금은 온라인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다. 자연과 삶의 풍경을 실크스크린 스타일의 절제된 그림으로 표현하며,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탁월한 구성 감각은 정적인 일러스트에 영화와 같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덧붙인다.

인터뷰어. 전윤희



Tom Haugomat

색과 형태 사이에서 숨 쉬는 이야기,
톰 오고마



톰 오고마의 작업실 책상 풍경과 늘 지니고 다니는 작은 스케치북.
톰 오고마는 아크릴 마커, 실크스크린 등을 이용한 손 그림과 디지털 작업을 병행한다.

지난 1~3월 서울에서 열린 <The Jaunt> 전시회에 참여했죠. 한국에서 드디어 당신의 작품을 실물로 볼 수 있어 기쁩습니다. 저도 한국에 작품을 선보이게 돼서 기쁩습니다. <The Jaunt>는 지금껏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어요. 아티스트들이 미지의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얻은 영감으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저는 2018년 일본의 야쿠시마섬으로 갔어요. 그곳의 야생에 감명받아 아주 많은 스케치와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완성한 2개의 실크스크린 작품과 몇몇 일러스트를 서울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에 전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린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에서는 라가치상을 수상한 당신의 책 『À Travers』가 전시됐어요. 『À Travers』는 왼쪽 페이지에 3인칭 시점, 오른쪽 페이지에 1인칭 시점의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어 굉장히 입체적이었습니다. 독자가 왼쪽 페이지 속 인물의 시선을 따라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요.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했다고요. 프랑스 출판사 티에리 마니에 Thierry Magnier 와 함께 아동 도서를 만들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경력이 스토리텔러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고블랭 영상 학교를 졸업하고 4년간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했어요. 그 시절 저와 브루노 만교쿠 Bruno Mangyoku 는 무성영화 <장프랑수아 Jean-François> 2009와 <해충 Nuisible> 2013 을 감독했습니다. 『À Travers』 작업을 할 때도 무성영화 같은 말 없는 내러티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몇 페이지는 꼭 찬 스프레드인데 페이지를 넘길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구성했죠.



스토리텔러라는 표현이 잘 어울려요. 무엇이 당신을 아티스트의 길로 이끌었나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께 어린이 책 삽화가가 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고블랭 영상 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안시 페스티벌에 출품한 단편 애니메이션들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몇 년 후 운명처럼 그는 단편 <장프랑수아>로 안시 페스티벌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다.) 입학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준비가 덜 되어서 먼저 소르본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예비 학교인 세브르 아틀리에 L'Atelier de Sèvres 에서 일 년 동안 그림만 그렸어요. 그때 인생 처음으로 내가 잘하는 것이 있구나 느꼈죠.

당신의 일러스트에는 광활한 자연, 목가적 풍경, 삭막한 도시의 삶까지 많은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장면도 꿈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서 주로 영감을 얻나요? 언제나 자연과 야생에서 매력을 느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알프스를 전문적으로 등산하고는 했어요. 동이 뜨기 전에 일어나 등산복을 챙겨 입고 플라스틱 등산화에 아이젠을 채우고 줄에 의지한 채 아버지를 따라 빙벽을 올랐죠. 거대한 산에 둘러싸인 야생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랄까, 이런 기억들이 제 그림의 구성 감각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광대한 풍경 속에 작은 사람을 자주 그리는 게 아닐까요. 또 저는 여행하면서 영감 얻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Mountain, 2017

빛과 그림자도 당신의 일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구름, 물결, 햇빛 등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형상화하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고블랭 영상 학교를 졸업할 무렵 마거릿 킬갈렌 Margaret Killgallen이라는 미국 아티스트를 알게 됐어요. 그녀의 천진난만한 작업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과 무척 달랐죠.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굳이 여러 디테일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단순한 모양과 굵은 선을 쓰고 실크스크린 작업을 시작했어요. 컬러를 겹치는 방식으로 작업하니 구성이 훨씬 단순해졌죠. 스타일이 아주 미니멀하기 때문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요.

색의 가짓수도 아주 적습니다. 때론 복고풍 색상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특히 3D 안경 같은 붉고 푸른 계열을요.

일곱 가지 색을 넘지 않을 것, 그게 제 규칙이에요. 실크스크린으로 색을 겹치는 과정을 통해 균일한 색면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초기에는 바우하우스 컬러와 르코르뷔지에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들의 비비드한 톤과 조화가 개인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저의 또 다른 책 『Hors Pistes』²⁰¹⁴는 청홍 대비를 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컬러는 여백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손 그림과 디지털 작업을 병행하는데, 작업 단계가 궁금합니다.

작업은 주로 포토샵으로 합니다. 디지털 작업은 특히 많은 수정이 필요한 상업적인 프로젝트나 책 작업에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우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전문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작업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아이패드 같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손으로 더 많이 그리려고 노력해요. 저는 작업할 때 선 스케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평면과 색상을 구성한 다음 모양을 정리하고 디테일을 추가해요. 마치 조각 작업처럼요. 시작할 때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에비앙, 넷플릭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뉴욕 타임스』 『르 몽드』 같은 유명 일간지와도 활발히 일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작업이 있나요?

프랑스에서 그림 작가로 살아간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생활비를 벌고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선 기업과 작업해야 하죠. 가장 도전적인 작품은 2014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파리 프랭탕 백화점 전체를 감싸는 15개의 거대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친구들을 모두 불러 거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처럼 작업했어요.

마지막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톰 오고마의 일상이 궁금해요.

파리 교외의 작은 정원이 딸린 집에서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요. 작업을 제외하곤 아빠의 삶을 살고 있죠. 여가 시간에는 두 살배기와 레고를 맞추거나 공원에 갑니다. 지난봄부터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작은 땅에서 가지와 토마토, 호박이 자라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요. 여행도 종종 갑니다. 안타깝게도 여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지만 말이죠. 아, 이건 꼭 말해야겠어요. 저와 아내는 한국 영화 광팬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 Artwork Keywords

VAST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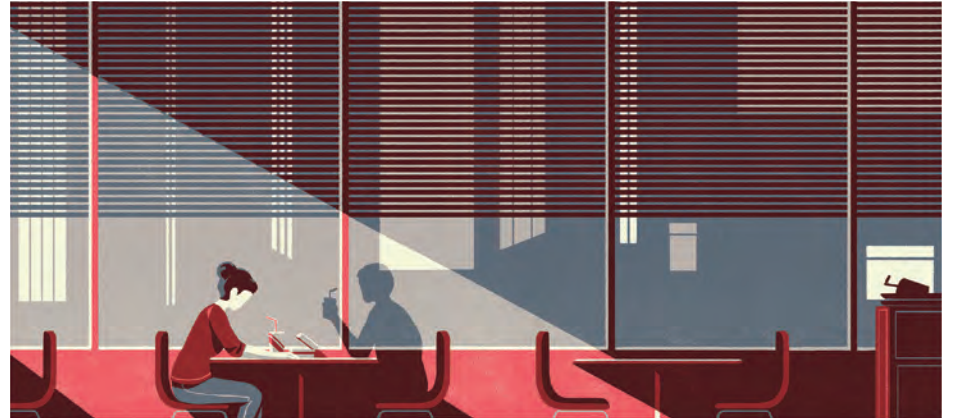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프랑스의 바위 협곡과 하얀 알프스, 폴리네시아의 섬, 달과 별. 그는 야생과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을 즐긴다. 그림 속 광대한 자연과 우주에 작게 자리 잡은 사람은 자연의 거대함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작품은 알프스 빙하를 등반하던 어릴 적 기억으로부터 비롯됐다.

STORYTELLER

톰 오고마에게는 탄탄한 구성 감각으로부터 비롯한 특유의 서사가 있다. 애니메이션을 감독하고 책을 만들며 이야기로써 장면을 연구한 덕이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구성과 입체적인 시선은 정적인 일러스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MINIMALISM

묘사가 단순할수록 감정이 풍부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뒤 적절한 생략을 택했다. 가능한 한 적은 색으로 그림에 깊이를 주려고 노력한다. 얼굴을 생략해 표정을 상상하게 하고, 옆모습과 뒷모습을 작게 넣음으로써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도록 만든다. 몇 가지 부분에 세밀하게 집중한 다음 여백을 충분히 두어 상상의 여지를 남긴다. 감상자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느낌의 여백을 주기 위해.



1



2

- 1 editorial work for 『L'OBS』, 2016
- 2 risography poster KIBLIND, 2017
- 3 editorial work about Jim Harrison for 『America』, 2019



3

1960



© 국립중앙박물관

열정에 불을 지핀 결정적 발견

빗살무늬토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주한 미국 상사의 문화유산 답사에 관한 내용이 한국과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데이비드 체이스 상사가 석기시대 부락의 터전을 발견해 한국 고고학 연구에 획기적인 공헌을 세웠다.” 『경향신문』 1960년 10월 27일 자 기사의 한 대목이다. 체이스는 유물을 발견하고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인 김원룡에게 연락했고, 둘은 양평에서 만나 옛터를 탐색했다. 이때 발견한 유물이 그릇 표면에 빗살같이 길게 이어진 무늬

가 새겨진 줄목문토기다. 문화재 애호가인 체이스의 열정과 유물 발견은 김원룡에게 기폭제가 되었고, 석기시대 연구에 몰두하게 만들었다. 발견은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져 체이스는 1960년 12월 7일 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했고, 김원룡은 한자 명칭이었던 줄목문토기를 순우리말로 순화해 빗살무늬토기라 새로이 이름 지었다. 이처럼 그는 한국 고고학 연대기를 바로잡는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로 큰 족적을 남겼다.

NOW &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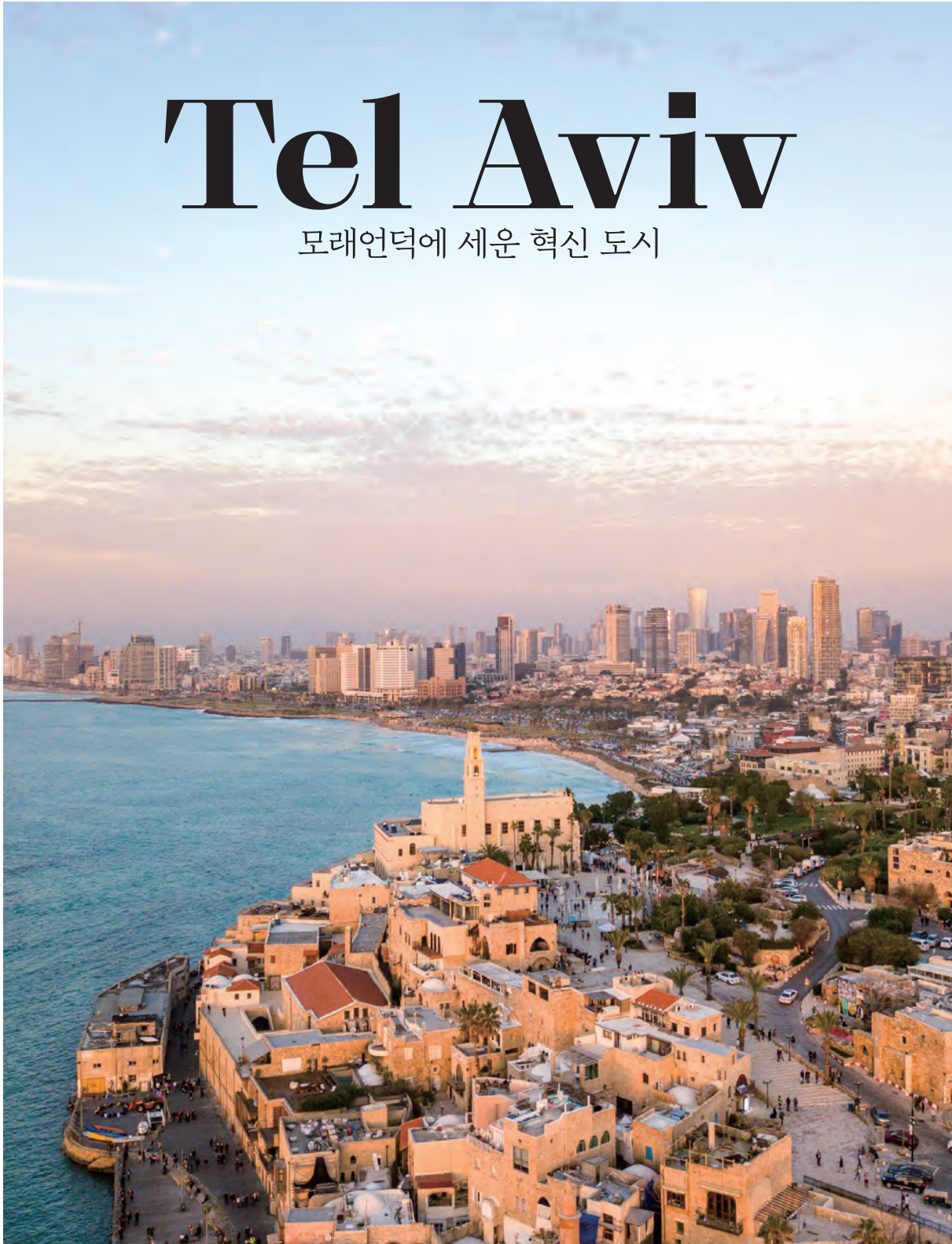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된
작은 노력의
합산이다.

괴테

1%의 재능과 99% 노력. 우리는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말한 성공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자,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자만이 성공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만들어진 도시, 취미, 사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Tel Aviv

모래언덕에 세운 혁신 도시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이자 국제법적 수도 텔아비브는 태생부터 이상주의적 신념에서 시작했다. 지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를 건설하겠노라는 청사진을 바탕으로 설계한 이 신생 도시가 세계적 도시로 부상하게 된 동력은 텔아비브 시민들의 독창적인 정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 ‘바우하우스’와 ‘비전’을 키워드로 오늘의 텔아비브를 이룬 혁신적인 정신을 탐구한다.

글: 이기선 여행 칼럼니스트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텔아비브 미술관.

화이트 시티 모더니즘 운동, 텔아비브의 얼굴을 완성하다

이스라엘의 관문 도시인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과는 다른 행성처럼 보인다. 지중해를 따라 길게 뻗은 황금빛 해변, 유럽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정돈된 시가지, 전 세계 대도시와 감각을 겨루는 식당과 바, 수준 높은 현대미술과 세계적인 LGBT 퍼레이드.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신념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뿌리 깊은 분쟁의 그림자를 잠시 가린다. 인구 46만 명의 이 젊은 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혁신적이고도 흥미로운 도시로 부상했다. 스타트업 기업가와 힙스터, 평범한 관광객 모두에게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고안한 청사진에서 비롯되었다.

텔아비브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한 가지 단서는 지도 위에 있다. 출발점은 바로 텔아비브 남쪽, 기원전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항구도시 야파 Jaffa다. 홀리 랜드 Holy Land를 찾아온 순례자들이 수천 년간 드나들던 야파의 에메랄드빛 침탑과 구불구불한 골목은 지금도 지중해를 굽어본다. 1909년 66가구의 유대인은 당시 이슬람 도시였던 야파를 벗어나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기 위해 야파 북쪽의 모래언덕을 매입해 텔아비브라 이름 붙였다. 이는 유대인 작가 테오도르 헤르츨 Theodor Herzl의 유토피아 소설에서 따온 것으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다. 비록 작은 규모의 정착지에 불과했으나 정착민들은 자신의 비전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미적이며 현대적 위생 기준에 따라 계획한, 건강한 환경의 히브리 도시’라는 비전 말이다. 텔아비브는 야파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가 될 터였다.

이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로 차츰 성장하던 텔아비브는 1930년대, 나치 정권을 피해 유럽에서 유대인 수만 명이 이주해오며 결정적 기회를 맞는다. 야파의 규모를 앞지를 만큼 급증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자 패트릭 게디스 Patrick Geddes의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텔아비브 북쪽에 기능적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에서 갓 이주해온 독일계 유대인 건축가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수학하고 에리히 멘델손, 르코르뷔지에 등의 거장과 함께 일했던 건축가들에게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바우하우스의 실험장이 주어진 셈이었다. 바우하우스 및 국제주의 양식의 새하얀 건물 4,000여 채가 텔아비브 중심부에 들어서고, 이 지역은 화이트 시티라는 애칭 같은 이름을 얻었다. 1950년대까지 이어진 도시개발 끝에 비로소 텔아비브의 모던한 얼굴이 완성되었다. 오늘날 화이트 시티는 전 세계에서 1930년대 바우하우스 건축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황금빛 모래 위에 세워진 드라마틱한 고층 빌딩.

도시의 숨은 진주, 바우하우스 건축을 찾아서



NOW & MOMENT



2

- 1 바우하우스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극장을 개조한 시네마 호텔 .
- 2 텔아비브 건물들의 공통 요소인 창문의 차양과 발코니. 직사광을 차단하고 그늘을 만들어준다.
- 3 각진 건물과 달리 외벽, 지붕 등이 곡선 형태를 띤다.



3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처음 등장한 바우하우스 운동은 텔아비브의 도시계획에 적합한 문법이었을 것이다.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공예를 통합한 기능주의적 디자인을 지향하며 건축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미술과 이념까지 포함한, 진정 혁신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밝은 색상과 곡선의 활용, 장식적 요소의 배제, 실용적 건축자재 사용과 같은 전형적 특징에 더해 유대인 건축가들은 바우하우스 양식을 지중해성 기후에 맞게 적용했다.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 크기를 줄이고 바람이 잘 통하게끔 긴 발코니를 층마다 추가했으며, 지붕을 평평하게 설계해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옥상을 마련했다.

화이트 시티의 바우하우스 건축물은 수십 년에 걸쳐 많은 수가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오늘날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은 1,000여 채 정도다. 텔아비브를 대표하는 로스차일드 대로 Rosthschild Boulevard 를 중심축으로 삼아 바우하우스의 정수를 돌아볼 수 있다. 넓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갖춘 이 대로는 텔아비브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중 하나다. 도로는 텔아비브 최초의 히브루어 극장인 하비마 극장 Habima Theatre 에서부터 시작해, 남쪽으로 유서 깊은 네브 체데크 Neve Tzedek 지역까지 이어진다. 많은 바우하우스 건축물이 지금도 주거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역사를 알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비마 극장 인근의 바우하우스 센터 텔아비브 Bauhaus Center Tel Aviv 가 여기에 적합한 장소다. 도시의 바우하우스 유산을 기념하고 보존하고자 설립한 곳으로 갤러리와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으며 여행객을 위해 텔아비브 건축 투어를 제공한다. 텔아비브 최초의 극장을 개조한 시네마 호텔 Cinema Hotel 과 서모미터 하우스 Thermometer House 는 대표적인 바우하우스 건축물이다. 서모미터 하우스는 외부 계단의 독특한 슬레이트 구조 때문에 온도계를 닮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인상적인 곡선 발코니를 층마다 갖춘 브루노 하우스 Bruno House 또한 바우하우스 건축의 좋은 예다.

비건 식문화에 깃든 혁신의 문화

텔아비브의 혁신적 정신은 식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 세계 비건의 수도로 통하는 텔아비브 전역에 400개에 달하는 비건 및 베지테리언 식당이 자리하며, 세계적 규모의 비건 페스트 Vegan Fest 가 매년 열린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개방적 도시 문화는 물론 채소와 과일 재배에 유리한 환경, 대중화된 팜 투 테이블 문화까지. 이스라엘 전반을 살펴보더라도 텔아비브에서 비건 식문화가 이토록 발달한 것은 응당 자연스러워 보인다. 유대교의 코셔 음식, 이슬람교의 할랄 음식 등 고유한 규율을 지키는 독특한 식문화는 이스라엘에서 이미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였다.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약 13%가 베지테리언, 5%가 비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미노 피자 가 첫 비건 피자를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출시했을 정도다. 하물며 이스라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인 후무스와 팔라펠도 비건 음식이다.

그러니 텔아비브 최대의 시장인 카르멜 마켓 Carmel Market 에서 지역산 채소와 과일을 구경할 때도, 전통 식당과 노점에 들를 때도 당신은 도시의 비건 식문화를 일부 체험하는 셈이다. 비건 요리를 창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젊은 셰프들은 비건 식문화뿐 아니라 텔아비브의 전반적인 다이닝 수준을 성실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도시 최초의 비건 카페인 아나스타샤 Anastasia 는 오가닉 비건 식료품을 엄선해 선보이는 편집숍을 겸한다. 바나 Bana 는 토스트, 버거, 후무스 등을 재치 있게 변주해 이곳 인테리어만큼이나 화사한 플레이팅으로 낸다. 텔아비브 외곽의 오가닉 농장으로 시작한 비건 레스토랑 메셰크 바르질레이 Meshek Barzilay 도 빼놓을 수 없다. 텔아비브의 비건 식당 리스트는 지금도 시시각각 갱신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 도시에서는 새로운 조우의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어두라는 것이다.

다양한 비건 푸드 중 하나인 두부국수.

AJU 60th ANNIVERSARY

RUN, TRAIL RUN

트레일러닝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

잠자고 있던 땅을 두드리는 힘찬 발걸음. 최근 도심 속 자연을 찾아 달리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 등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강변과 숲길, 산책로, 등산로를 중심으로 횡으로 달리는 일은 익숙한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험으로 안내한다. 동시에 복잡하고 사나웠던 생각과 마음을 다독이고 정리하는 사색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활기찬 에너지와 고즈넉한 명상이 공존하는 트레일러닝의 매력 속으로.

뭐가 다를까? 러닝 vs. 트레일러닝

Where	Who	What
 러닝 고르게 잘 닦인 운동장 트랙이나 로드.	얼마나 빨리, 멀리 뛰는지 결과를 통한 성취감을 중요시하는 러너.	땀 흡수와 배출이 잘되는 러닝복을 준비해 저체온증 등의 위험을 막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재킷도 준비한다.
 트레일러닝 동네 뒷산, 논길 등 자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리는 동안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러너.	일반 러닝복을 입으면 되지만 신발만큼은 트레일러닝에 최적화된 제품을 신어야 한다. 접지력이 좋은 트레일러닝화를 신어야 부상 위험이 덜하다.

요즘 가장 뜨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헬스장이나 체육관, 수영장 등 실내 공용 체육 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요즘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으로 향하고 있다. 혼자 등산을 즐기는 일명 ‘혼산’부터 산에 있는 헬스장을 일컫는 ‘산스장’에 이르기까지 아웃도어 관련 신조어가 생길 만큼 도심 속 자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트레일러닝이다. 포장하지 않은 길, 즉 트레일 trail을 달리는 트레일러닝은 산길, 들판, 해변 등 자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길 닿는 대로 달리는 아웃도어 활동이다. 조깅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이미 7,500만 명 아웃도어재단 발표, 2015년 기준 이 트레일러너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 산악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크루 crew를 중심으로 한 러닝 문화의 유행과 함께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이 흐름에 발맞춰 여러 아웃도어 브랜드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달아 관련 대회를 개최하면서 트레일러닝은 이제 인기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다.

러닝보다 트레일러닝이 좋은 이유

트레일러닝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달리기와 새로운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트레드밀 러닝 머신 위를 뛰어본 이라면 단 10분 달린 게 마치 한 시간을 달린 것같이 금방 지루하고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야외에서라면 훨씬 낫겠지만,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것은 단조롭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마찬가지다.

반면 트레일러닝은 정해진 길이 없다. 다양한 길을 뛰는 즐거움이

있다. 언제 어디를 달리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일반 러닝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주력과 기록을 키 재기 하며 성취감을 맛보는 즐거움이 크다면, 트레일러닝은 자연의 지형지물을 뛰고 넘고 오르고 내리며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지가 즐거움의 요체다.

전문가들은 오르막과 평지, 내리막이 반복되는 다양한 패턴은 지루함을 덜어줄 뿐 아니라 운동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오르막의 경우 평지에 비해 근육에 더 큰 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무엇보다 트레일러닝의 장점은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달린다는 것이다. 탁한 먼지와 매연으로 가득한 도심이 아닌, 맑은 공기로 가득한 산속 오솔길을 달리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찌들었던 마음에도 위안과 힐링이 된다.

트레일러닝 초보자라면

트레일러닝은 정해진 길이 없는 운동인 만큼 코스 길어도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준은 시간이다. 초보자의 경우 가볍게 조깅하듯 30분~1시간 정도 뛰었을 때의 이동 거리를 목표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 기분이 내키면 빠르게도 뛰어보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가볍게 걷기도 하면서 운동량을 조절하면 된다.

트레일러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뛰거나 걸을 때다. 낮은 산길이나 가파른 길을 오를 때는 발끝을 먼저 바닥에 디벼야 한다. 내리막길은 뒀 때와 걸을 때 방법이 각각 다르다. 걸어 내려갈 때는 뒤꿈치를 먼저 밟는 편이 좋고, 뛰어 내려갈 때는 속도 조절이 편하게 발로 바닥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발을 디벼야 한다.

어디를 달릴까? 추천 트레일러닝 코스

서울둘레길

서울은 전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매력적인 트레일러닝 스폿이 많은 도시다. 도심 한가운데 수려한 산이 솟아 있고 도심과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다. 그중에서도 트레일러닝을 하기 좋은 코스로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둘레길 코스가 손꼽힌다. 트레일러닝만을 위해 조성한 곳은 아니지만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총 8개 코스 초급 2개, 중급 5개, 고급 1개 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문자는 이 중 초급 코스인 강동구·송파구 지역의 3코스와 강서구·구로구 지역의 6코스를 달리면서 트레일러닝의 재미를 느껴보기 바란다.

gil.seoul.go.kr/walk/course/dulae_gil.jsp

서울둘레길 코스 안내

1코스
수락산—불암산
지역 노원구, 도봉구
거리 18.6km
소요 시간 8시간 40분
난이도 고급

2코스
용마산—아차산
지역 광진구, 중랑구
거리 12.4km
소요 시간 5시간 10분
난이도 중급

3코스
고덕산—일자산
지역 강동구, 송파구
거리 26.1km
소요 시간 9시간
난이도 초급

4코스
대모산—우면산
지역 강남구, 서초구
거리 17.9km
소요 시간 8시간
난이도 중급

5코스
관악산
지역 관악구, 금천구
거리 12.7km
소요 시간 5시간 50분
난이도 중급

6코스
안양천
지역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거리 17.8km
소요 시간 4시간 20분
난이도 초급

7코스
봉산—앵봉산
지역 마포구, 은평구
거리 17.0km
소요 시간 6시간 30분
난이도 중급

8코스
북한산
지역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거리 34.5km
소요 시간 17시간
난이도 중급



뭘 준비할까? 트레일러닝 준비물

APP

혼자였다면 쉽게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거리도 함께하면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어렵지 않게 달릴 수 있다. 다만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혼자 달리거나 최소한의 인원이 움직이도록 한다. 혼자 달리기가 막막하다면 스마트폰 달리기 앱이 훌륭한 러닝메이티이자 러닝 코치가 되어줄 것이다.



Nike Run Club
페이스, 위치, 거리, 고도, 심박수, 구간별 소요 시간 등 상세 정보를 러닝 중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된다.



Strava
일종의 SNS인데 팔로워들과 피드를 주고받고, 기록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달리기 도전 과제 역시 자극제가 된다.



Run Day
달리는 강도에 따라 적절한 음악이 자동 재생돼 운동 효과를 높인다. 스트레칭, 근력 훈련, 신발 관리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한다.

BAG

배낭은 5~10L 용량의 작은 것이 좋다. 배낭 속에는 구급약과 헤드 랜턴, 초콜릿 같은 행동식, 물, 비상금 등 간단하게 행진다. 날씨에 따라 모자나 고글 등도 챙겨 넣는다.

MUSIC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널리 알려진 대로 달리기 마니아다. 에세이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집필하고, 책 속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20XX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고 묘비명을 쓰고 싶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다음 리스트는 알아주는 음악 애호가이자 러너인 그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추천한 ‘달리기 음악’ 목록이다. 물론 달리지 않을 때 들어도 좋다.



Murakami Haruki's Play List

- ♪ **Madison Time**-Donald Fagen
- ♪ **Heigh - Ho / Whistle While You Work / Yo Ho**’-Brian Wilson
- ♪ **Surfing USA**-The Beach Boys
- ♪ **D. B. Blues**-King Pleasure
- ♪ **Sky Pilot**-Eric Burdon and The Animals
- ♪ **My Way**-Aretha Franklin
- ♪ **Suburbia**-Pet Shop Boys
- ♪ **What a Wonderful World**-Joey Ramone
- ♪ **Between The Devil and The Deep Blue Sea**-George Harrison
- ♪ **Knockin’ on Heaven’s Door**-Ben Sidran
- ♪ **Love Train**-Daryl Hall & John Oates
- ♪ **Light My Fire**-Helmut Zacharias

SHOES

트레일러닝의 필수 준비물은 단연 트레일러닝화다. 기존 러닝화와 무엇이 다른지, 트레일러닝화를 고를 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알아보자.

Weight

러닝화는 무엇보다 가벼워야 한다. 신발이 짐이 되어선 곤란하다.

Upper

갑피에 통기성이 뛰어난 메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면 발의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Toe Cap

발가락이 돌, 바위 등에 부딪혔을 때 부상 방지를 위해 토 캡이 있는 트레일러닝화를 고를 것.

Outsole

바위나 비탈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면 아웃솔의 접지력이 뛰어난 제품을 골라야 한다. 바닥 창에 ‘비브람 솔’ 로고가 찍혀 있으면 믿어도 된다.

Insole

쾌적하고 편안한 착화감을 좌우하는 것은 인솔이다. 충격 흡수력이 우수한 쿠셔닝과 향균 및 방취 기능을 갖춘 인솔인지 확인할 것.

내 마음의 보물 창고

최지웅

호돌이가 마냥 좋아 88올림픽 굿즈를 모으던 13살.
극장에 붙은 포스터를 몰래 떼다 붙잡힌 19살. 좋아하는 것들로 방
곳곳을 채우던 아이는 결국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가 되고, 2018
평창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뛰며 ‘성덕 중의 성덕’이 됐다.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파간다의 최지웅 실장은 여전히 동모시장을
빛과 소금으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천국으로 여긴다.
영화 속 아름다운 순간을 보고 만지고 소유하며 평생 자신만의
보물 창고를 꾸려온 최지웅에게 아카이브에 대해 물었다.



여전히 영화 포스터 작업으로 바쁘시죠? 바쁜 와중에도 스튜디오 한편에 굿즈 숨을 꾸렸어요. 자체 제작 포스터부터 엽서, 물 건너온 회귀 아이템까지 없는 게 없어서 ‘영화 덕후들의 굿즈 성지’라고도 불려요. 일종의 큐레이션 무비 숍인 ‘프로파간다 시네마 스토어’예요. 신사동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통 매월 마지막 주에 한 가지 주제로 스토어를 열어요. 영화 OST LP, 해외 영화제 물품 등 굿즈 기반으로 주제를 잡고요. 나머지 굿즈는 섹션을 나누어 진열해둬요. 저희가 라이선스를 사서 만든 아트 포스터도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책자, 『키노』『필름2.0』 같은 옛날 영화 잡지, 극장 개봉 당시의 오리지널 포스터 등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은 것,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은 것, 수집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것, 그동안 틈틈이 산 것들이예요.

어릴 때부터 영화 포스터 모으기를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단지와 홍보물을 모았어요. 예쁜 포스터를 보면 그게 길거리 벽이든 극장이든 막 떼어 왔어요. 옷을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포스터 수집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이라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걸 옆두에 두게 돼요.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누군가의 서랍이나 방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 되기도 하니깐요. 그 영화가 평생 갖게 되는 단 하나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면 포스터 제작에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올 9월에는 『20세기 아카이브 시리즈: 잡지 창간호』를 내셨죠. 이 외에도 ‘문방구 딱지’, ‘88올림픽 굿즈’, ‘영화 홍보물’ 등을 주제로 자체 출판을 이어왔어요. 20세기 물건을 아카이브 방식으로 구성해 책을 내는 이유가 뭔가요? 재밌어서요. 제가 워낙 이런 책을 좋아해요. 일본만 해도 검 종이, 음료수 패키지 등 별별 아카이브 책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책이 비교적 적은 데 대한 아쉬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수집을 좋아하다 보니 기록으로 남겨보자는 마음에서요. 모으고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사람들은 이런 작업에 거창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저는 누군가 모아두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들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무엇인가요? 『88 Seoul』요. 88서울올림픽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호돌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우표, 배지, 스티커, 응원 깃발 등 초등학생이 구할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성인이 되고도 꾸준히 사 모았더니 1,000점 정도 되더라고요. 제 수집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과 사진도 SNS로 받아 책을 냈어요. 이 책 덕분에 평창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선발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언가를 모으는데, 수집과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향 원주에 있는 극장에서 포스터를 뜯다가 영사 기사님에게 걸린 적이 있어요. 뒷덜미를 딱 잡혔죠.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다 지켜봤다, 왜 훔쳐 가느냐’ 하시기에 ‘영화 포스터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포스터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고 했더니 아저씨가 저를 옆 창고로 밀어 넣는 거예요. 한 대 맞겠구나 싶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창고에 포스터가 가득했어요. 극장이 생긴 이래로 그곳에서 개봉한 영화의 포스터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주섬주섬 다 챙겼죠. 밤이라 차 끓겠다고 택시비까지 챙겨주셨어요. 프로파간다 시네마 스토어에 전시해둔 <시네마 천국> 포스터도 그때 챙겨 온 거예요. 극장 개봉용 오리지널 버전이죠. 마치 그 영화 속 토토가 저고, 영사 기사님이 알프레도 아저씨인 것 같아요.

포스터, 아카이브 책, 굿즈… 또 만들거나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극장을 차리고 싶어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포스터를 전부 우리가 만들고, 그 영화만 상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화도 수입하고 제작도 하고요. 미국의 어느 지방에 가면 그런 극장이 있대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의 포스터를 거기에서 직접 만드는 극장이요. 그 포스터를 가지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 모습을 상상해본 적도 있나요? 새 건물이나 멀티플렉스는 아니고, 단관 극장에 디자인 사무실 그리고 굿즈 숍도 꾸릴 거예요. 음, 10년 안에는 이루고 싶어요.



프로파간다 시네마 그래픽스에서는 1950~1960년대 영화 선전물, 1970~1980년대 문방구 딱지, 88올림픽 굿즈, 잡지 창간호를 모아 『영화선전도감』, 『딱지 도감』, 『88 Seoul』, 『20세기 레트로 아카이브 시리즈: 잡지 창간호』를 냈다. 시리즈물로 기획 중인 『20세기 레트로 아카이브』의 다음 주제는 ‘과자 포장지’라고.





먹이는 일의 성스러움

소설 『칼자국』 속 칼국수

글. 정여울 작가

반지의 반짝임보다는 식칼의 근면함을 쥐고 살았던 엄마의 이야기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음식보다 ‘친구네 엄마’의 음식을 좋아했다. 웬지 다른 집 음식이 더 맛있어 보였다. 멸치로 맛을 낸 엄마의 심심한 김치찌개보다 참치나 돼지고기를 넣은 친구네 집 얼큰한 김치찌개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싱싱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엄마의 김밥보다는 햄과 맛살을 빼곡히 썰어 넣은 남의 집 김밥이 더 맛있게 보였다. 조미료를 쓰지 않는 엄마의 음식,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엄마의 입맛은 어린 딸에게 어쩐지 단조롭고 심심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햄이나 참치가 들어간 걸쭉한 김치찌개보다 엄마의 담백하고 시원한 김치찌개가 그림다. 햄과 맛살이 많이 들어갈수록 인스턴트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 김밥임을 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무슨 맛집의 콩나물해장국보다 그냥 말갈고 맛없이 끓인 엄마의 콩나물국이 그림다. 엄마가 길들인 아이들의 입맛이란 이렇다. 결국엔 ‘우리 엄마표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단 하나의 아우라를 지닌 음식이 된다.

김애란의 소설 『칼자국』 속의 칼국수도 그런 ‘단 하나의 아우라’를 지닌 음식이다. 특별히 무시무시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기애 더욱 애뜻하고 눈물겨운 그런 음식. 게다가 그 칼국수가 가정용 음식만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오랫동안 운영해온 음식점에서, 가게로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먹인 그런 음식이라면 더욱 애뜻함과 절실함이 농밀하게 묻어 있는 음식이 아닐까. 평생 칼국수 면발을 썰어낸 엄마의 칼자루, 온갖 식재료를 썰고 또 썰어내느라 종이처럼 얇게 닳아버린 엄마의 칼날. 그것은 가느다란 겉모습과 달리 엄청난 인내와 사랑과 희망의 시간들을 담아낸 강인한 모성의 상징이다.

그리하여 딸은 엄마를 이렇게 기억한다. “엄마는 칼을 든 무사였다. 세상의 험벗을 속에서 새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무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아버지의 실수로 집안이 빗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썰고 썰어낸 그 칼국수의 길고 긴 면발이 마침내 이 가족을 살려낸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의 피로를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었던 엄마가 마침내 깊은 병에 걸리자 딸의 가슴은 무너진다. 딸은 자신의 운명에 엄마의 기억, 즉 엄마의 칼자국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국수 면발의 기억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는다. 그 칼자국이 엄마가 떠나고 없는 시간에도 자신을 지켜줄 것임을 아프게 깨닫는다.

반지의 반짝임보다는 식칼의 근면함을 쥐고 살았던 엄마의 이야기는 독자의 가슴에 아프고도 따스한 여운을 남긴다. 20년 넘게 손칼국수를 만들어 팔며 세 딸을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는 독자의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엄마표 집밥의 애뜻함을 일깨운다. 『칼자국』의 어머니는 수동적으로 희생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가는 착하기만 한 어머니가 아니라서 더욱 매력적이다. 복잡하고 결함 많고 씩씩한 여성, 아들을 낳으라는 주변의 압력을 거부하고 국수 가게를 차려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강인한 여성, 본가에 들어와 살림과 농사를 맡으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 삶을 꾸리는 용감한 여성이었다. 이 작은 칼국수 가게는 아이들을 키우는 살림집이기도 하여 더욱 애뜻하다. 살림집과 음식집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은 이 복합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온갖 손님들의 뒤치다꺼리를 감내하는지를, 그 얼마나 다사다난한 감정 노동을 견뎌내며 힘겹게 자신들을 키웠는지를 목격하며 자라게 된다. 그리하여 칼국수집 엄마의 딸은 그저 엄마의 거친 손, 칼날에 수없이 벤 상처를 통해 몽클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속 깊은 어른으로 성장해간다.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치우는 일의 성스러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20년간 낡은 식칼 한 개로 국수를 만들어 팔아온 엄마. 식당 앞에서 무서운 개가 딸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는 그 식칼을 쥐고 딸을 지켜낸 엄마. 피곤한 몸으로 국수 반죽을 자르다가 손가락 세 개를 한 번에 베인 엄마. “어머니의 식칼은 긴 세월, 자르는 몇 번 바뀌었으나 칼날은 그대로였다. 날은 하도 갈려 반짝임을 잃었지만, 그것은 닳고 닳아 종내에는 내부로 딱딱해진 빛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딸의 온몸에는 칼국수 하나하나를 지나간 엄마의 칼자국이 남아 있는 것만 같다. “나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어두운 내 몸속에는 실로 무수한 칼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나를 건드린다. 내게 어미가 아픈 것은 그 때문이다. 기관들이 다 아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 우는 여자도,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용감한 여자의 이야기. 이 소설은 따스한 음식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치우는 일의 성스러움이 없다면 이 세상은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다.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성스러운 일이기도 한 음식 만들기,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밥상에 앉기.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끼니’라는 이름의 희생제의를 치르고, 요리라는 이름의 위대한 노동의 대가를 향유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힘겨운 돌봄 노동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리라는 노동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가. 엄마의 식칼, 그 작은 사물 하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켜내는가. 먹고 마시고 요리하고 치우는 일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살림과 장사를 모두 척척 해내는 엄마는 그 누구의 칭찬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매일 거대한 바윗돌을 언덕 위로 들어 올리는 신화 속의 시시포스처럼 묵묵히, 반복을 지켜워하지 않으며, 삶이라는 아름다운 화단을 가꾸어낸다. 칼국수를 자르느라 늘 날카롭게 갈아놓은 식칼의 선드한 번쩍임, 그것은 삶을 향한 무한한 성실함이자 책임감의 징표가 아니었을 까. 도마질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맥박 소리처럼 자식들의 삶을 지켜주는 마음의 횡발이었다. 이 소설의 제목 또한 매력적이다. 칼자국이라니. 제목은 너무 날카로운데 그 안에는 너무도 따스하고 말강한 것이 들어 있다. 겉으로는 날카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따스함과 다정함을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리의 소중함이고 엄마의 추억이며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칼자국』 김애란 저

성인이 된 딸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지난 추억을 돌아보는 과정이 가슴 몽클하게 펼쳐진다. 김애란 소설가는 어머니로서, 또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자기 앞의 생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자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린다.

정여울 작가

제3회 전속희문학상을 수상한 산문집 『마음의 서재』, 심리 치유 에세이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청춘에게 건네는 다정한 편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인문 교양서 『해세로 가는 길』 등을 썼다.

이색 국수 레시피

사진: 이과용
요리 & 스타일링: 박세훈



나베우동

재료 2인분
우동 면 500g, 숙주 300g, 차돌박이 200g, 느타리버섯 150g, 황금송이버섯·청경채 100g씩, 연근·경수채 50g씩, 표고버섯 5개, 실곤약 5타래, 알배추 1통, 대파 1대, 반숙 달걀 ½개, 김 약간
국물: 물 3L, 다시마 100g, 가쓰오부시 30g, 멸치 국물용 15마리, 건표고버섯 5개, 간장 10큰술, 미림 5큰술

만드는 법
1 — 냄비에 물, 다시마, 멸치, 건표고버섯을 넣고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간장, 미림, 가쓰오부시를 넣고 10분 후 체에 거른다.
2 — 숙주, 느타리버섯, 황금송이버섯, 청경채, 연근, 경수채, 표고버섯, 알배추, 대파는 깨끗히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썬다.
3 — 냄비에 손질한 채소, 차돌박이, 실곤약을 가지런히 담고 1의 국물을 부어 한소끔 끓인다.
4 — 우동 면을 삶은 뒤 달걀, 김을 올려 나베에 곁들인다.

tip
시판 우동 생면은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으므로 국물에 넣어 먹더라도 끓는 물에 데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칼국수 한 그릇으로 자식의 허기진 삶을 위로했던 소설처럼 가족을 위해 따뜻한 국수를 만들어보자. 찬 바람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뭉근하게 녹이는 이색 국수 레시피를 소개한다.



낙지조개칼국수

재료 2인분
칼국수 면 500g, 낙지 2마리, 모시조개·미더덕·미나리·대파·실고추 적당량씩, 맛술·소금 약간씩
국물: 물 1L, 무 100g, 다시마 80g, 대파 뿌리와 흰 부분 2~3대 분량, 청양고추 1개

만드는 법
1 — 냄비에 국물 재료를 넣고 끓이다가 다시마를 먼저 건져낸 후 무가 익으면 체에 거른다.
2 — 모시조개, 미더덕은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물로 해감하고 낙지는 밀가루로 씻어 내장을 제거한다. 대파는 어슷썰기하고 미나리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3 — 칼국수 면은 끓는 물에 삶는다.
4 — 냄비에 1의 국물을 넣고 끓으면 모시조개, 미더덕, 맛술을 넣는다. 조개 입이 벌어지면 건진 후에 거품을 제거한다.
5 — 4의 냄비에 삶은 칼국수 면, 낙지, 미나리, 대파를 넣고 한번 더 끓인 후 마지막에 실고추를 올린다.

tip
시판 칼국수 생면은 서로 둘러붙는 것을 막기 위해 밀가루를 뿌려놓았으니 털어내고 삶아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



재료 2인분
뽕잎 칼국수 면 400g, 감자·청양고추 2개씩, 애호박 ½개, 부추 3~4잎, 들깻가루 볶은 것 3큰술, 된장 1큰술
국물: 물 1L, 다시마 80g, 멸치 국물용 10마리, 표고버섯 3개, 대파 2대

만드는 법
1 — 냄비에 국물 재료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다시마를 꺼낸 후 중불에서 20분간 더 끓인 다음 체에 거른다.
2 — 감자는 껍질을 벗긴 후 투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부추는 5cm 길이로 채썰기한다. 청양고추도 채썰기한다.
3 — 뽕잎 칼국수 면을 적당하게 삶아 물기를 뺀다.
4 — 냄비에 1의 국물, 감자를 넣고 끓이다가 감자가 익을 때쯤 약불로 낮추고 들깻가루, 된장을 체에 걸러 푼다.
5 — 4에 뽕잎 칼국수 면, 애호박, 부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인다.

tip
칼국수 반죽을 직접 만들 경우 냉창고에서 한나절 정도 숙성시키고 요리하기 20~30분 전에 실온에 두었다가 가볍게 치넨 후 면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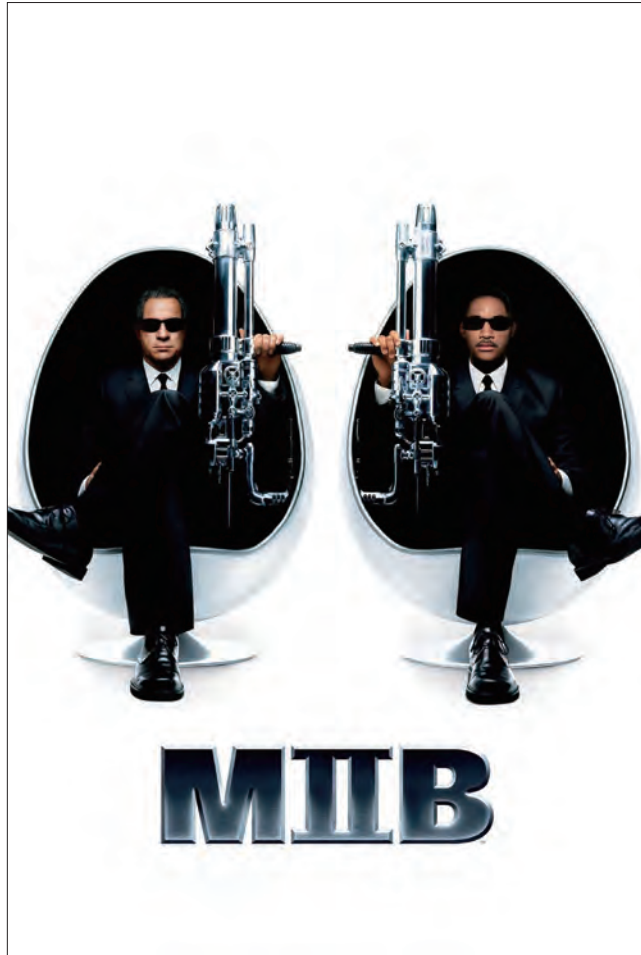
뽕잎들깨칼국수



재료 2인분
중면·두부 찌개용 200g씩, 진간장 1큰술, 국간장 ½큰술, 썩갠·만가닥버섯 적당량씩, 소금 약간
국물: 물 1L, 다시마 80g, 멸치 국물용 15마리, 건표고버섯 2개, 대파 2대
양념장: 청양고추 다진 것 2개 분량, 마늘 다진 것 2쪽 분량, 쪽파 다진 것·진간장·멸치액젓·국물·국간장 1큰술씩, 고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1 — 냄비에 국물 재료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다시마를 꺼낸 후 중불에서 20분간 더 끓인 다음 체에 거른다. 고명으로 사용할 다시마와 표고버섯은 채썰기한다.
2 — 썩갠과 만가닥버섯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 적당한 크기로 다듬고 두부는 손으로 툇툇 자른다.
3 — 냄비에 1의 국물을 넣고 진간장,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한 다음 두부를 넣고 한번 끓인다.
4 —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5 — 중면은 적당히 삶은 후 찬물에 행귀 물기를 뺀다.
6 — 그릇에 중면, 썩갠, 다시마, 표고버섯, 만가닥버섯, 두부를 넣고 국물을 부은 뒤 양념장을 곁들인다.

tip
중면을 삶을 때는 물이 끓어오르면 열음 1~2조각을 넣고 다시 끓기를 3번 정도 반복한 후 재빨리 얼음물에 비벼 행군다.



〈맨 인 블랙 2〉포스터에도 등장하는 오발리아 에그 체어.
©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시간을 달리는 의자

〈맨 인 블랙〉속 클래식 체어

영화 〈맨 인 블랙〉은 우주의 중립 지대, 지구에서 인간으로 신분을 감추고 사는 외계인들과 비밀 정예 요원 ‘맨 인 블랙 MIB’이 엮이며 만들어내는 재미가 쏠쏠하다. 외계인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 범우주적 공간은 20세기 말 사람들이 생각하던 미래적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집기 중 의자의 경우 유독 미드센추리 1940~1970년대 시대에 디자인한 실제 작업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외성을 보인다. 과거의 유산을 우주 영화에 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 전종현 디자인·건축 저널리스트

범우주적 공간에 녹아든 미드센추리 의자

MIB 본부가 위치한 곳은 뉴욕의 트라이보로 대교 & 터널 관리국 건물. 글로시한 하얀색으로 마감한 유기적인 인테리어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증폭시키는데, 가구에 눈 밝은 사람들의 시선을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몇 가지 물건이 지구에 구축한 범우주적 공간에 보일 듯 말 듯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뉴욕시 경찰 출신으로 엉겁결에 MIB 요원 선발 테스트에 초대받은 제임스 에드워드 윌 스미스가 첫 테스트 방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의자는 매끈한 달걀형으로 유명한 ‘오발리아 에그 체어 Ovalia Egg Chair’다. 덴마크 디자이너 헨리크 토르라르센이 1968년에 발표한 작업물이다. 달걀 모양의 의자에 몸을 반쯤 걸친 채 필기시험을 보다가 곡선 때문에 제대로 글씨를 쓰자 못하자 에드워드는 일어나서 구석에 놓인 타원형 테이블을 끌고 와 받침대로 쓴다. 테이블 다리는 4개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바닥과 선반이 아찔한 곡선의 중앙 받침대 하나로 연결된 이 물건은 핀란드 출신의 미국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에로 사리넨의 ‘튤립 오벌 테이블 Tulip Oval Table’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도에 놓인 양중맞은 모양의 의자는 핀란드 가구 디자이너 에로 아르니오가 1971년에 만든 ‘토마토 체어 Tomato Chair’다. 이런 미드센추리 가구가 집약된 곳은 MIB 본부를 책임지는 본부장 제드의 집무실이다. 고요한 이곳에 비치된 제드의 업무용 의자는 덴마크 가구의 아이콘인 아르네 야콥센의 ‘에그 체어 Egg Chair’이며 손님용 의자는 그의 ‘스완 체어 Swan Chair’로 구비돼 있다. 모두 코펜하겐 SAS 로열 호텔 로비에 비치하기 위해 1958년에 디자인한 것이다.



토마토 체어(Tomato Chair). © Eero Aarnio Originals



스완 체어(Swan™ chair). © FRITZ HANSEN

영리하게 차용한 우주 시대의 디자인

외계인이 출현하는 SF 영화에 왜 이렇게 오래된 미드센추리 디자인이 나올까. 여기에 힌트가 되는 단어는 아마 ‘우주 시대’일 듯싶다. 1957년 10월 4일 소비에트 연방이 우주선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면서 지구는 갑작스레 우주 시대의 개막을 맞게 된다. 지구라는 행성 밖으로 인간의 피조물이 진출하며 인간의 지각 영역이 광대한 우주 공간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시대 말이다.

1960~1970년대에 절정을 맞이한 우주 시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 특징이 있다. 과학을 접목해 새로운 기능과 소재를 찾아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기적 형태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과감하게 외형을 장악한다. 실제 우주 시대 디자인을 대표하는 의자인 ‘볼 체어 Ball Chair’는 앞서 언급한 에로 아르니오가 1963년에 발표한 것이다. 그는 또 1967년, 물에 뜰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대칭적인 곡선을 결합해 하나의 미래형 오브제로 보이는 ‘패스틸 체어 Pastil Chair’를 발표했다. 패스틸 체어의 단점을 보완해 3개의 구형을 결합한 것이 바로 토마토 체어다. 에드워드가 필기시험을 볼 때 앉았던 오발리아 에그 체어는 볼 체어에서 받은 영감을 좀 더 발전시킨 것으로, 거대한 달걀 같은 기시감이 오히려 이질감을 증폭시키는 데 한몫한다.

이런 우주 시대 디자인은 본부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절정을 맞는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동그란 구형 램프들이 직선을 뿜붙이며 증식하는 조명 방식의 별명이 바로 스푸트니크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튤립 체어와 튤립 테이블은 미래적인 곡선 때문에 우주 시대 디자인에 영향을 준 중요한 전범으로 인식되며, 풍부한 양감과 유기적 형태로 지금도 감탄을 부르는 야콥센의 에그 체어와 스완 체어도 같은 선상에 존재한다.



에그 체어(Egg™ chair). © FRITZ HANSEN

동시대성을 지닌 타임리스 디자인의 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앞서 언급한 미드센추리 시대의 가구는 단지 20세기 우주 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인 작업이라 20세기 말에 상상한 범우주적 공간의 구성 요소로 편입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이들은 ‘우주 시대 디자인’으로 국한하기엔 시대와 맥락을 초월한 지 오래다. 나무가 아닌 글로시한 유리섬유를 주재료로 삼고 다리 2개, 다리 4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선형에 기반해 유기적으로 형태를 결합한 〈맨 인 블랙〉속 의자와 테이블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환하더라도 현재의 관심을 깨는 연구적인 동시대성을 획득했다. 즉 20세기 우주 시대의 디자인을 넘어 그 자체로 늘 새로운 진보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매개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1990년대 상상력이 구축한 전자 기기와 각종 기물의 존재 지금 보면 촌스럽기 그지없는 데 휩쓸리지 않고 영화에서 우주라는 ‘낯선’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은 비정형 건축으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이나 네덜란드의 가구 디자이너 요리스 라르만이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의자 등 생물의 유기적인 조직을 닮은 예측 불가능한 디자인에서 진보적인 이미지를 얻곤 한다. 이런 작업은 우주 시대의 21세기적 디자인 형식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며 경이로운 미적 쾌감을 준다. 하지만 동시에 2020년이라는 특정 시대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온 지 반세기가 훌쩍 넘은 타임리스 디자인의 동시대적 존재감으로부터 여전히 강렬한 회열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를 영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비밀을 푼 최후의 발견
스톤헨지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손꼽히던 스톤헨지가 2020년에 목록에서 사라졌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대인들의 지혜로움의 증거로만 남을 뻔했던 스톤헨지, 그 비밀의 열쇠를 푼 이는 현대의 과학자들이다. 영국 남부 솔즈베리 북쪽에 펼쳐진 평원에 자리한 스톤헨지는 ‘공중에 걸쳐 있는 돌’이라는 고대어에서 유래한 이름처럼 받침돌과 덮개돌 구조의 거석이다. 이 작자 미상의 유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추적한 영국의 과학자들은 스톤헨지의 암질 광물의 여러 성질을 연구했고, 불과 2.4km 떨어진 우드헨지에서 유래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고대인들이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는 추측을 뒤엎는 결과였다. 그리하여 2020년, 마침내 수천 년간 논쟁해온 세기의 질문 ‘최초의 인류에게 문제 해결 능력과 욕구가 있었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되었다.

AJU & STYLE

관중의 총명과
습부의 지혜로도
모르는 것은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한비자 (韓非子)

한비자의 『한비자』에는 노마지지(老馬之智, 늙은 말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쌓은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훌륭한 지침이 됨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시대, 한국사의 굽이굽이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온 아주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아주의 원동력인 ‘도전 정신’을 살펴봅시다.

1960

AJU TIMELINE

60
20

아주의 6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60년이 보입니다.
아주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교차하는 기념비적인 해를 꼽아봅니다.
이를 통해 아주의 성장이 단지 기업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해온 시대와 사람이 더불어 성장한
열매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2020



1960

새로운 물결

4·19 혁명 — 아주산업 설립

1960년 4월 19일, 부패한 자유당 정부에 반발한 학생들의 시위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대통령이 하야하기에 이르렀다. 이 어려운 시국에 고 문태식 창업주는 기업보국 企業報國의 첫걸음으로 1960년 9월 아주산업을 설립했다. 아주산업은 1960년대 정부의 농어촌 전기 보급 사업과 맞물려 나무 전주를 콘크리트 전주로 대체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초석을 다졌다.



1985

성장의 기틀

63빌딩 준공 — 신아주,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준공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1970년대에 시작된 산업화 바람은 1980년대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 당시 국내는 물론 동양의 최고층 빌딩으로 기록된 63빌딩은 고도성장의 상징과도 같았다. 1981년에 설립한 신아주는 1985년 상봉터미널을 개장, 서울 강북 지역의 중심 공용 버스 터미널로 자리 잡았다. 상봉터미널은 당시 유례없는 규모뿐 아니라, 수익 사업으로 슈퍼마켓을 영위하며 오늘날과 같은 터미널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 현재 신아주는 상봉터미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87

위대한 도전**88서울올림픽—관광·레저 사업 진출**

정부는 관광 유치단 파견, 외국 언론인 초청, 해외여행업자 초청 등 다방면에 걸쳐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을 대비했다. 1990년대를 앞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던 아주는 이처럼 올림픽과 함께 급성장하던 관광 산업에 주목했다. 아주는 그 첫 번째 도전으로 호텔 사업 진출을 결정하며 호텔서교를 인수했다. 2018년 호텔서교는 지역사회와의 젊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1997

위기 속 기회**IMF 구제 금융 요청—금융 사업 진출**

우리 국민은 IMF 구제 금융이라는 대위기 속에서도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과 단합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갔다. 같은 해 아주는 아주기술투자 설립을 통해 금융 사업 진출을 모색했다. 아주기술투자는 1999년 펀드 2개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벤처 투자에 나섰다. 이후 아주는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등 금융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현재 아주IB투자의 내실 있는 성장 도모에 기여했다. 아주IB투자는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국내 VC 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6

지속 성장**청계천 복원 사업—자동차 유통 사업 본격 진출**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그동안 3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찾을 정도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지자체들에게 도시 재생, 역사 문화 공간 회복, 친환경 도시 환경 창출 등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2004년부터 오토리스,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후방 사업에 관심을 가졌던 아주는 2006년 아주모터스 설립을 통해 자동차 유통 및 정비 서비스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아주모터스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GM의 신차 판매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아주네트웍스와 아주오토리움에서 재규어랜드로버와 볼보의 신차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2007

새로운 탄생**코스피 최초 2000P 돌파—범아주 가족의 탄생** 아주, 신아주, AJ

2007년 7월 25일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3에서 한 단계 높은 A2로 상향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꿈의 지수인 '2000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아주는 그룹 내 아주렌탈 등 주요 회사를 계열 분리했다. 이후, 계열 분리된 회사들은 아주LNF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구조로 개편되었으며, 현재의 AJ그룹으로 지속 성장해왔다. 현재 AJ는 기존의 렌탈 사업 외에도 AJ파크, AJ오토파크시스템즈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08

글로벌

한국 수영 역사상 첫 금메달—글로벌
경영의 원년

박태환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당당히 세계 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내수 시장에서 한계를 느낀 아주는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주는 첫 번째 공략지로 베트남을 선택, 2008년 2월 설립한 아주베트남은 아주그룹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라는 사명을 안고 PHC 파일 및 PC 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동종 업계 최초의 베트남 공장 설립이라는 의미까지 더해져 더욱 뜻깊은 도전이었다. 건자재는 베트남 진출 이후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동남아 시장을 우선 공략하며 해외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 중이며 그 밖에 아주IB투자와 아주호텔앤리조트의 미국 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추진 중이다.



2016

휴머니즘

알파고 이세돌 대국—고 문태식 창업주
국민훈장 추서

이세돌은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펼친 끝에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같은 해 고 청남 문태식 창업주에게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이 추서됐다. 문태식 창업주는 '개척자 정신'이라는 창업 이념 아래 콘크리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2013년 아주의 첫 발원지인 중랑구에 토지 26만 3,799㎡, 시가 400억 원 상당의 사재를 기부했으며, 이는 2018년 주민들의 휴식처인 청남공원으로 재탄생했다. 또한 고 청남 문태식 창업주의 서울 용두동 생가 터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장소인 '아주 좋은 꿈터'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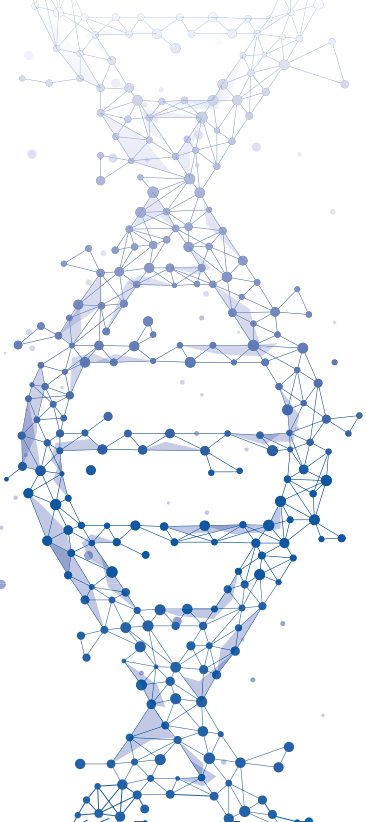


2020

미래의 생존

코로나19 팬데믹—2020 아주 창립 60주년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세계 경제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이 팬데믹 시대에 버티고 살아남는 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업이 걸어온 긴 여정의 방향을 틀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라이프스타일이 구분될 것이고, 기업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이다. 변화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 60주년을 맞는 아주는 20세 청년의 마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도약할 것이다. "Take the Leap!"



도전 정신 깨워 새로운 도약

60년 아주가 여전히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스무 살 청년 같은 도전 정신,
개척자 정신이 기업의 DNA로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창업주로부터 시작된 ‘도전 DNA’가
앞으로의 60년을 이끌어 나갈
아주의 성장 동력인 이유.
아주그룹 문규영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다.

문규영 회장



아주그룹의 위대한 유산

아주의 도전 DNA는 이미 그 시작부터 명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1960대에 나무로 제작하던 전신주 전봇대를 콘크리트로 바꾸고, 아파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지하를 파는 대신 콘크리트파일로 건물
기초를 쌓기 시작한 것도 모두 아주의 남달랐던 도전 정신이 이뤄낸 눈부신
결과다. 문규영 회장은 고 문태식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에 늘 감화받는다고
말한다.

1960년도 당시만 해도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주를 설치하려면,
50년 이상 키운 10m 정도의 나무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6·25전쟁
때문에 그런 큰 나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수입이다
보니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창업주께서는
“전신주를 콘크리트로 만들면 5분이면 가능한 일인데, 비싼 외화를 주고
몇 달, 몇 년씩 걸려 굳이 나무 전주를 수입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주의 창업이념인 ‘개척자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신주를 콘크리트로 만든다는 것이 당시로써는 그리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창업주께서는 기술자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파악하는 한편,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창업주께서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무 전주를 콘크리트 전신주로 대체하는 사업은
1960년대 정부의 농어촌 전기 보급 사업과 맞물려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창업주의 창업 이념과 경영철학, 기업가 정신 덕분에 아주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이야기

어려서부터 문규영 회장은 선친으로부터 ‘도전 정신’을 배웠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친을 꼽는 문 회장에게 창업주는 아버지이자
그야말로 ‘인생의 스승’이었다. 특히 문 창업주가 문 회장이 어릴 때 자주
들려줬던 ‘나폴레옹과 무지개’ 이야기는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그의 가슴을
약관의 청년처럼 뛰게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창업주께서 자주 해주셨던 ‘나폴레옹과 무지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열 살 때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며
“난 무지개를 잡으러 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비웃음에도
나폴레옹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지개를 잡으러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야유를 보냈지만 나폴레옹은 오히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들은 주저앉아 있었지만, 나는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기까지 갔다 오며 많은 것을 보았어.”
어린 나이에는 창업주께서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성년이 되어 돌아보니 그 메시지는 바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없이는
창의력도 생기지 않으며 혁신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혁신을 말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도전 정신을 가슴에 새긴 문 회장은 그룹 입사 후
35년간 회사생활을 거쳤고 경영을 맡은 이후부터는 무엇보다
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자제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금융·호텔·자동차·유통·IT 등으로 넓히고 조직문화 개혁도
부단히 시행하며 기업의 성장 엔진을 가동시켰다. 60년 앞을 내다봤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여느 기업처럼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문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도전과 혁신이 이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가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내의 환경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본격적으로 퍼져나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 국가는 물론 사회와 기업에게 전대미문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이며,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또한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별로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리모트 워크, 화상회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창립 6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축하와
기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시련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자어
‘위기 危機’에서 ‘위 危’는 ‘위험’을 의미하지만 ‘기 機’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난 60년간 시련과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60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분명 지금의 어려움도 가뿐히 이겨내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좋은날』 독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 난관을 이겨내 한 발 더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AJU news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주산업과 국가기술표준원과의 대화

아주산업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찾아주신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간담회를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외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아주산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

아주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6월 3일 청남빌딩 17층 AJU인재다움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국가기관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업 지원 정책 간담회 행사의 일환으로, 아주산업은 건설자재 제조업체를 대표해 국가기술표준원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아주산업 박상일 대표를 비롯해 아주산업 해외사업본부 김교준 본부장, 아주기술연구소 이대식 소장 등이 참석,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때 종종 부딪히는 표준·인증에 관련된 애로 사항 등 현지 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주산업은 표준·인증 문제를 비

롯해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해외 사업 운영 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전달했다. 오랜 해외 사업 과정에서 겪은 아주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 들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대한민국 표준이 현지 표준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지 국가기관과의 만남의 자리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당 국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원장은 동남아시아의 표준·인증 관련 문제는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이번 방문에 대해 아주산업 해외사업본부 김교준 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여러 기업이 큰 어려움 없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아직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동남아시아 프로젝트와 관련, 아주산업을 비롯한 국내 여러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해외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아주산업 역시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국내 표준^{KS}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 웨스턴과 한국이 만나 창조된 새로운 미각, 신규 레스토랑 ‘차르’

RYSE

코로나19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던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6월 13일 재개관하며 19일 신규 레스토랑 차르^{CHARR}를 오픈했다.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F&B팀에서 선보이는 레스토랑 차르는 ‘숯불에 그을려 향을 입히다’라는 의미의 ‘차르드^{charred}’에서 영감을 얻어 붙인 이름. 사과나무와 백탄 참숯을 이용해 향을 입힌 우드 그릴 요리가 메인으로, 인테리어 또한 빈티지한 감각으로 꾸몄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그릴 요리에 미각을 돋워주는 대표 허브, 로즈마리 향이 오감을 자극하며 기분 좋은 첫인상을 안겨주는 게 특징. F&B팀 김재웅 매니저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젊은 에너지와 창의적인 감각을 그대로 담은 친근하면서도 품직한 웨스턴 스타일의 맛을 중심으로 차르만의 참신한 미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르 요리는 모두 ‘글로벌적으로 사고하되 로컬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를 모토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웨스턴 조리 스타일에 국내 식자재를 활용하고 한국 전통의 맛을 더해 한국 내 다양한 지역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차르만의 유니크한 구성이 눈길을 끈다. 지리산 스테이크 샌드위치, 떡갈비와 갓김치 버거, 춘천 닭갈비 클럽 샌드위치 등 지역색 가득한 재료에서 탄생한, 재미있고 색다른 조합이 돋보이는 메뉴들이 그것.

또한 차르는 호텔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비싸고 분위기가 무거울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F&B팀 컬리너리^{Culinary} 윤치호 셰프는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친 용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성비와 가성비 넘치는 메뉴와 함께, 메인 디시의 경우 고기의 에이징 정도나 원산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직접 고를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의 폭도 넓혔다고 설명했다.

언택트로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아주

추석을 앞둔 9월 22일, 최고경영자와 건자재 해외법인 주재원들의 화상 간담회가 아주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문규영 회장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어 왕래가 쉽지 않은 여러분들은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며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화상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는 아주베트남^{양우종} 법인장, 최윤일·이주현 팀장, 아주캄보디아^{최현} 법인장, 박주현·양정현 팀장, 아주미얀마^{손법석} 법인장, 황동모·문재훈 팀장 주재원들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접속한 가운데, 주재원들이 현지 상황을 전하고 최고경영자의 응원과 격려를 받는 훈훈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는 나라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각 법인들의 위기 극복 전략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해, 온라인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각 해외법인 팀장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최고경영자의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문규영 회장은 “기업이라는 배를 운항하면서 늘 항구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다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그것은 배가 아니죠. 험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언제나 먹구름, 천둥, 번개, 태풍 등을 겪어가는 것이 기업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지금 이 순간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주큐엠에스, ‘G+AIDER’ 도약을 위한 산학 협력 MOU 체결

아주큐엠에스

아주큐엠에스가 지난 5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하 ‘청강대’와 게임 테스트 자동화 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 및 게임 테스트 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산학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아주큐엠에스는 올해 12월까지 청강대 게임 콘텐츠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자동화 테스트 솔루션, ‘G+AIDER 지에이더’를 다양한 게임에 적용해보며 상용화 활성화를 한 번 더 확인해볼 예정이다.



창립 60주년 기념 패키지 및 와인 제작

아주

아주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패키지와 와인을 제작했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자 기획하였다. 기념 패키지는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더하는 기프트카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지원하는 RYSE 바우처로 구성되었다. 기념 와인은 RYSE의 ‘양화로130’의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에 아주의 창립연도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각각 숫자 1960, 2020로 디자인하여 기념 라벨을 만들었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와 함께하는 환경보호 프로젝트

아주오토리움

아주오토리움이 지난 7월 6일부터 일산·목동·안양 전시장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용 차량 관련 인쇄물을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 대체했다. 이는 2040년까지 기후 중립화를 달성한다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책 계획을 지지하는 볼보의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아주오토리움은 영업 현장의 모든 매니저들에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전시장 내 제품 브로슈어와 액세서리 리플릿, 차량제원표 등 기존의 인쇄물을 대체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주 좋은 꿈터 작은도서관, 온라인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 시작

아주복지재단

아주 좋은 꿈터 이하 ‘꿈터’가 지난 4월 8일부터 꿈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aju.egentouch.com를 통한 온라인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관 때부터 모든 연령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와 잡지 3,000여 권을 비치,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인 꿈터는 그동안 지역 아동·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온라인 도서 예약 대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아주IB투자, 틱스 사업 신규 운영사로 선정

아주IB투자

아주IB투자가 8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틱스* 사업의 신규 운영사로 선정되었다. 아주IB투자는 바이오 Bio: 의료, 신약 등, 언택트 Untact: 신소비, 비대면, 원격 진료 등, 딥테크 Deeptech: 혁신 소재, 외국 기술의 국산화 추진 기업 등 등 일명 ‘BUD’를 설정하고 향후 1년 내에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여러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 틱스(TIPS): 인간의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한 초기 기술 창업 팀을 선별, 엔젤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등을 집중 지원해 기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래픽 아티스트 크리스 로와 함께한 공감각적 미술 작품 공개

RYSE

8월 13일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호텔 외벽에 새로운 설치미술 작품을 공개했다. 양화로와 홍대 골목을 잇는 통로에 공개한 이번 미술 작품 <3, Three Sounds>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이자 서울에서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크리스 로 Chris Ro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숫자 3에 대해 시각은 물론 청각적으로도 접근해 작품을 해석해줄 것을 부탁했다.



다섯 번째 최고경영자 메시지 모음집, 『행복은 가까이, 문과 함께』

아주

8월 14일 최고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담긴 주요 메시지를 엮은 『행복은 가까이, 문과 함께』가 발간되었다. 2011년 처음 발간된 『문의 편지』 이후 최고경영자의 철학을 모은 다섯 번째 책자다. 이번 책자는 ‘같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 ‘ANT 세션’, ‘코칭 세션’ 등 최고경영자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물론, 신년사 및 창립 기념사 등 주요 시기마다 구성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함께 엮었다.



아주 최고경영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아주

6월 23일 문규영 회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Stay Strong, 강하게 버티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는 전 세계가 연대와 지지를 통해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강인하게 이겨내자는 SNS 릴레이 캠페인으로, 문규영 회장은 캠페인 공식 로고 하단에 ‘아주 좋은 내일을 위해’라는 문구를 적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SPECIAL GIFT

『아주좋은날』 2020 가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상상으로 만나는 FACES COLORING BOOK』
숨 가쁜 일상에서 빠져나와 숨 고르기 모드로
들어가고자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정맞춤인 컬러링
북이다. 환상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가 현실 공간의
나를 상상 속의 공간으로 순식간에 옮겨놓는다.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 원망하거나 미워하면서 상대
혹은 나를 닮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33가지 오해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본다.



『세상을 바꾼 식물 이야기 100』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자이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실생활에서 익숙한 100가지
식물에 얹힌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세계사와 함께
소개한다.

1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독서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롭게 상상이 넘치는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끌곤 합니다. 2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한 경험담과 다채로운
이미지로 상상력을 펼쳐게 하는 컬러링 북, 세계사와 얹힌 흥미진진한 식물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는 이야기를 담은 애플트리테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내 맘대로 유럽여행』
여행연수로 시작한 외국 여행을 20년 가까이
해온 베테랑 여행자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토대로
'공부도 하고 여행도 즐기는 일석이조 여행법'을
사진과 에세이로 풀어냈다.

3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잔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reader's story

지난 호 ‘knowledge’의 케렌시아에 대한 칼럼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글 같은 우리의 일상은 투우장과
뭐가 다를까.” 마음에 울림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읽으며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나에게 케렌시아는
자전거 길이 있는 강변입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자전거 길이 있는 하천에 다다릅니다.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그곳이 작지만 소중한
나의 케렌시아입니다. 나의 케렌시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성섭 님

세상의 속도보다 조금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폐 아동인 아들을 키우면서 나의 삶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 분, 일 초도 쉬지 않고 바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들을 키우기란 여간 녹록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고, 웃는 날보다
힘들고 화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소화행을 찾자면, 그것은
『아주좋은날』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김은덕, 백종민 작가의 여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독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행 갈 때도 챙겨 갈 만큼 특별한 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좋은 날 되세요.

김문희 님